



보도시점 2026. 2. 5.(목) 11:00
2. 6 (금) 조간

배포 2026. 2. 5.(목) 9:00

K-농산업 수출 확대로 'PRIME TIME(전성기)' 연다

- 농식품부, 농산업 업계 간담회 개최,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 발표
- 2026 농산업 수출 목표 38억 달러 설정, P-R-I-M-E 5대 전략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5일(목) 농산업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 농산업 범위 : 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

* 간담회 참석 :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주재),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스마트팜산업협회, 종자협회, 비료협회, 작물보호협회, 동물약품협회 등

지난해 농산업 수출은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 증가한 32.4억 달러를 기록하여 농산업 수출 실적을 공식 집계한 `22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P-R-I-M-E 5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수출로 개척하는 K-농산업 프라임(PRIME) 타임’을 비전으로 삼고, 2026년 농산업 수출 목표를 38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년 실적 대비 17% 이상 상향된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① 국내·외 수출 거점·기반 조성(Platform Set-Up)

바이어·프로젝트 발굴·매칭, 홍보, 계약 등을 지원하기 위한 품목별·지역별 맞춤형 수출지원 플랫폼을 확충한다.

스마트팜은 중동(사우디, `26.上 준공), 북미(캐나다, `26. 착공 → `27. 준공)에 시범온실을 추가 조성하여 현지 수출 거점을 마련하고, 충남 서산에 전시·홍보·실증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특화 수출지원센터를 신규로 조성(`26~`28)할 계획이다.

농기계는 업계와 협력하여 동남아 권역 수출 거점으로서 필리핀에 한국농기계 전용공단을 구축(`26~`34)하고, ODA 사업으로 진행 중인 세네갈 농기계 수리센터(`24~`27)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장기적 아프리카 진출 발판을 마련한다.

무인·자동화 시설·장비, 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드론 등 다양한 AX 모델의 국내·외 확산과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AX 비즈니스센터도 전남 무안에 신규 조성(`26~`28)할 계획이다.

② 규제 대응 및 무역장벽 해소(Readiness & Rules)

그간에는 해외 규제·무역장벽에 사후적이고 개별 기업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면 앞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사전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인·허가 획득 지원을 위해 농진청, 품목별 단체·기업 등과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허가 수요를 파악하여 품목별·국가별 인·허가 요건·절차, 해외 대행업체 등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지원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인·허가 기관 네트워크를 보유 중인 농진청과 협력하여 정부 주도로 임시 인·허가, 상호인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통상 협의제도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KOTRA는 통상 이슈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품목별 협회·기업은 이슈 시나리오별 업계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농식품부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③ 기술혁신·고도화(Innovation)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농진청과 협력하여 해외 수요와 연계된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 역량 및 제품 품질을 고도화한다.

낙농기술의 중앙아시아 확산을 위한 ‘K-카우 와우 프로젝트*’를 확대(우즈베키스탄 1개국, 2.7억원 → 3개국, 8.1억원)하고, 볼리비아 현지 R&D를 신규로 추진하여 중남미 고산지대 맞춤형 농기계를 개발하는 한편, 유럽(고온극복)·아시아(사계절) 등 현지 환경 맞춤형 온실 PO필름(폴리올레핀)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 현지 실증단지를 조성해 낙농기술 패키지(수정란, 사료첨가제, 백신 등) 실증 지원

동물용의약품 고도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GMP 컨설팅을 지원하고, 임상 시험·제품등록 등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신약 개발을 위한 시제품 생산시설(`26. 준공) 및 임상시험 지원센터(`26~`29)를 신규로 구축한다.

또한, 농산업 분야 공장 자동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수출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④ 시장 개척 지원(Market & Move)

수출비용 경감,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수출시장 개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준비(인·허가 등) → 실행(물류비 등) → 홍보’로 이어지는 수출 전주기 지원 사업의 항목과 한도를 확대(14개 항목, 최대 5천만원 → 20개 항목, 7천만원)하고, 스마트팜 패키지(기자재·솔루션·재배기술 등)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지원(6개)과 기술력 입증에 위한 실증 지원(6개)도 지속 추진한다.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박람회 한국관 운영, 스마트팜·농기계 로드쇼 개최, 수출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원자재 구입자금과 중소벤처기업부 협업 수출바우처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⑤ 대외 협력체계 강화(External Governance)

스마트팜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간 협의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UAE 정부와 스마트팜 협력체계를 신규로 구축하는 한편, 카타르 정부와 `24년부터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협력위원회도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동으로 현지 실증을 추진하여 중동 지역 바이어를 대상으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K-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다양한 수출 모델을 발굴해 도입을 제안하고, 이들 국가에서 대규모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기관·국제기구·투자기관 등 국내 초청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UN 등의 조달 관계자를 초청해 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해외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농산업 수출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농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별첨)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한상훈 (044-201-2472)